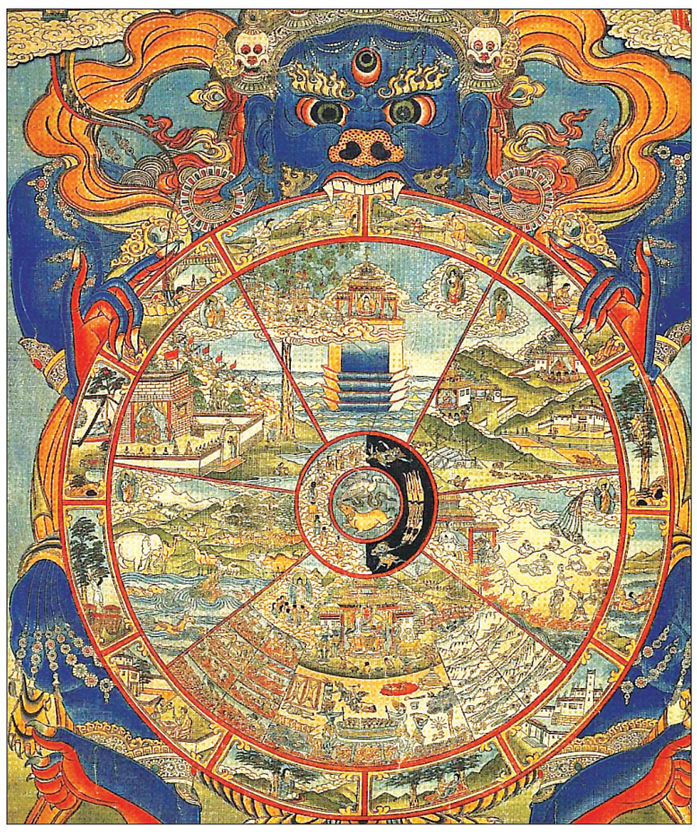
윤회 관련 연구 집대성하다



윤회
로저 잭슨 지
윤희조 옮김
운주사
2만5000원

불교의 중요 개념인 '윤회' 고찰
역사적 맥락서 윤회관 변화 살펴
향후 윤회사상 나아갈 길 모색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티베트 불교의 '육도윤회도' 사진=화정박물관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웹툰과 웹소설들의 소재적 트렌드는 '전생'이나 '환생'이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환생이나 전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현세대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지만, 전생과 환생이라는 개념 모두 욕망과는 거리가 있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기실, 불교도들의 궁극적 목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성불한다는 것은 곧 윤회를 끊어낸 자리인 것이다. 당연히 불교에서 '윤회'는 절대적인 전제, 진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윤회'는 불교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는 가장 잘 알려진 전통 종교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윤회사상에 대한 불교적 접근 방식의 역사와 범위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현대사회의 불교도 중에는 윤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리처드 헤이즈 같은 학자는 불교가 버려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논리적인 기능을 손상하고 방해하는 업과 윤회에 대한 교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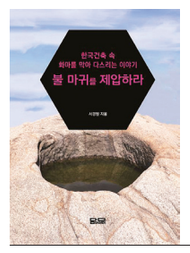
50년 간 티베트 불교를 연구해 온 로저 잭슨 미국 칼던 대학 명예교수의 저작 〈윤회〉는 불교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윤회'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다.

실제, 윤회는 불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미 인류는 많은 문화 안에서 다양한 윤회관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인류사 속의 윤회관을 살핀 뒤 불교로 관점을 좁힌다. 이후 붓다의 윤회관을 고찰한 뒤, 역사적 흐름, 지역적 구분에 따른 윤회관의 변화와 핵심을 살핀다.

이 책은 윤회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질문, 옳고 그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다만 '윤회'라는 핵심적 주제에 대해서 2000년 이상 이루어진 불교의 광범위한 담론을 조사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론적 측면에서 윤회 연구를 집대성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인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수는 "육도, 나아가서 십법계가 온처계와 더불어 불교의 우주론이라고 한다면, 깨달음과 우주론은 윤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윤회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축서 찾은 '불조심 인문학'



불 마귀를 제압하라
서경원 지음
담디
2만1600원

한국건축의 특징은 나무와 흙으로 지은 목조건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장 취약한 것이 화재다. 전쟁 등을 이유로 사찰과 사원, 궁궐이 전소됐던 것은 목조건축이라서다. 화마라는 재액을 막기 위한 여러 상징체계들이 문화유산과 기록 속에 들어있다.

통도사는 매년 단오절에 소금단지를 차려 놓고 구룡지에서 용왕재를 지낸다. 이 소금단지들은 모든 사찰 전각의 처마 밑 사방 기둥머리에 올려진다. 소금은 바다를 상징하고 바다는 부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동해 바닷물을 떠다 용왕제를 지내기도 했다. 물의 신 용왕님이 화마를 막아 물리쳐, 부처님을 모신 사찰의 금당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다. 바로 대광명전의 평방에 붙어 있는 '항화마진언(抗火魔眞言)'이다.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계시니/ 바로 바닷속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입에는 하늘을 삼킬 만한 큰물을 머금고 계시니/ 능히 불 마귀를 막아 제압하실 분이다.(吾家有一客 定是海中人 口呑天漲水 能殺火精神)"

화마로부터 해인사를 지켜내려면 불을 불러오는 남산제일봉의 화기를 억눌러야 했다. 이를 위해서 해인사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산의 이름을 바꿨다. 앞산의 불기운을 아예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는 "매화산(埋火山)"으로 개명했다. 두 번째로는 대적광전을 중건할 때, 전각의 축을 불의 산인 남산제일봉을 피해 서쪽으로 틀어지었다. 세 번째는 지금도 매년 단오절에 사찰 경내와 남산 꼭대기에 소금단지를 묻어 화기를 제압하는 방책을 세운다.

이 같은 화마를 막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들을 저자는 〈불 마귀를 제압하라〉를 통해 풀어낸다. 화마를 막기 위한 상징체계와 그 의미를 되짚는 저자의 이야기를 좇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재미다.

신중일 기자

클래식, 붓다를 만나다



클래식, 경계를 넘어
김준희 지음
자유문고/ 2만원

두 쪽으로 갈려 있는/ 이 잎은 본래 한 몸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로 보이는/ 이것은 본래 두 개인가?/ 이런 물음을 궁리하다가/ 나 참 뜻을 깨달았다/ 그대는 내 노래에서 역시/ 내가 하나이며 또한 둘임을 느끼지 않는가?

김준희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경계를 넘어〉는 괴테의 〈서동시집〉에 수록된 '은행나무'의 일부를 인용하며 시작한다.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에게 영감을 받아 집필한 괴테의 유일한 단행본 시집에서 저자는 붓다가 설한 불이(不二) 가르침을 봤다.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해석을 내보인 이유도 이 같은 관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클래식, 경계를 넘어〉를 관통하는 2가지 키워드는 '클래식'과 '붓다'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하면, 기독교와 불교일 수도 있고, 음악과 종교일 수도 있으며, 서양과 동양일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에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조합으로 보이지만 저자는 이런 편견에 과감히 도전한다. 오히려 이 둘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동질의 것임을 설파한다.

클래식은 태생적으로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으며, 붓다의 생애 또한 종교로서의 불교와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적 색채를 걷어내고 보면, 이 둘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삶을 살찌우고, 감동을 주며, 보편성을 지향하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가 "음악이라는 언어는 음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상념, 혹은 우리들의 지성에 어떤 심상을 일깨워 준다"고 음악의 역할을 말했듯이, 붓다 역시 죽비 같은 가르침으로 집착에 사로잡힌 중생의 망념을 일깨운다.

저자는 붓다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설명한다. 즉 붓다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깨달음, 교화, 열반에 이르는 삶의 여정과 가르침, 그리고 저자가 가려뽑은 클래식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작곡가의 에피소드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붓다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클래식 음악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엮은 23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덧붙여 간결하고도 친숙한 현대 '미니멀리즘' 음악과 불교의 만남도 소개하고 있다.

경계는 우리가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선을 넘는, 경계를 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는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클래식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매 챕터마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신중일 기자

박물관 디자이너가 본 살아있는 옛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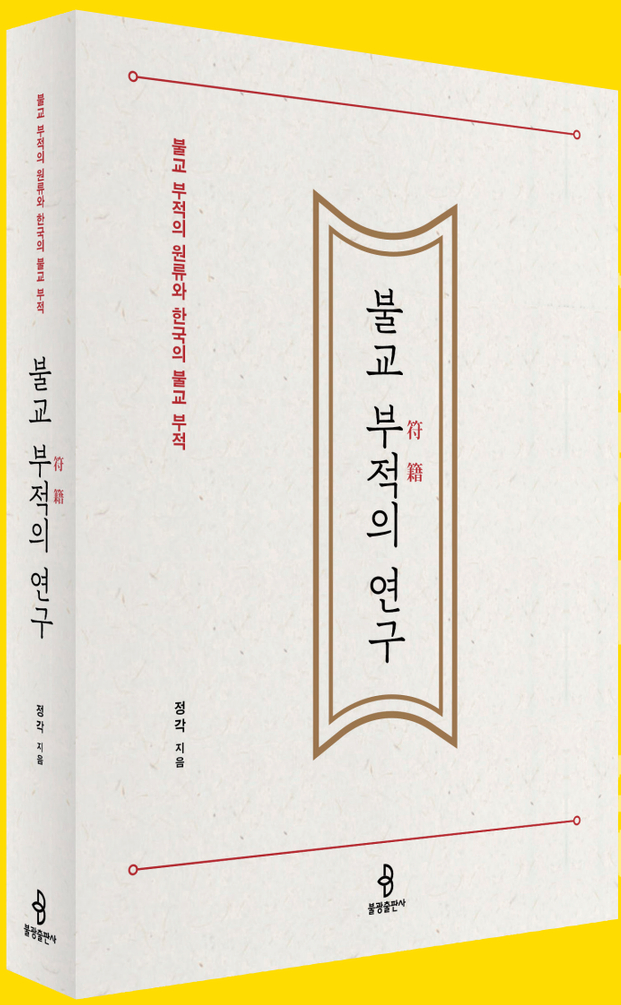
박물관에서 서성이다
박현택 지음
통나무
1만9500원

저자 박현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디자이너로 30여 년간 일하고 정년퇴직했다. 그의 저작인 〈박물관에서 서성이다〉는 전통문화유산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보기'를 제안하고, 시대를 넘어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한다. 또 디자인의 이념과 표현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시대정신을 반영해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디자이너인 저자는 이 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진화하는 바람직한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한 것을 독자와 공유한다. 매 꼭지마다 시대적 배경과 소재는 달라도 책 전체에 디자인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스며있다. 이를 통해 잘 디자인된 것들만이 가치 있는 문화재로 남게 됨을 역설한다.

저자는 "박물관의 안과 밖에서 서성서성 배회했다"고 한다. 박물관에 간 디자이너가 박물관의 주역이 아닌 주변인이나 경계인이었음을 자처하고 있다. 스스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물관'과 '디자인'을 넘어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저자의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이 책은 나열식 지식전달이 아닌, 감성과 직관의 도움을 통해 독자에게 사물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시각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부적의 원류와 한국의 불교 부적
불교 符籍 부적의 연구
정각 지음
496쪽 | 올컬러
35,000원

왕생과 성불의 염원을 담은 불교 부적,
그 원류와 역사를 좇는 거대한 여정!

오늘날 미신 혹은 민간신앙의 산물로 여겨지는 부적.
부적은 정말 '불교의 정법(正法)'과 무관한 것인가?

돈황 자료 및 대장경에 실린 불교 부적,
그리고 고려·조선에 통용된 우리 불교 전통 부적까지,
그 역사의 흔적을 발굴해내는 단 하나의 책!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제대로 알고,
이 부적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나간다면 한류의 흐름에 아름다운 꽃잎을 더하게 될 것이다."

_ 남은당 현봉 대선사(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